

불교 고고학의 연구방법 시론

최태선 Ⅱ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국문초록

“佛敎考古學”이란 사전적 의미로 불교유적이나 유구에 대한 현상을 밝히기 위한 고고학 방법의 하나라는 의미로 함축될 수 있다. 학문적 범주로는 역사고고학 중에 ‘종교고고학’ 영역이며 종교고고학에서 ‘불교’와 관련된 제 유적이나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와 해석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많은 불교유적의 조사성과에 비해 학문으로서의 불교고고학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웃한 국가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참조로 하여 불교고고학의 정의를 설정해보고 연구방법론을 설정해 본 것이다.

이에, 우선 불교고고학의 정의를 불교역사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된 성과를 왕조역사에서 한단계 나아가 불교역사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영역을 공간성, 시간성으로 구분하여 불교고고학의 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유의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불교고고학을 완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설정해 보았다.

1. 조사방법으로 문헌과 고고자료를 결합한 유적별 조사연표가 마련되어야 조사 결과에 따른 편년과 유구의 주요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시론이다.
2. 불교유적 조사 방법상 유의할 점으로는 문화적 의미를 통해 유적과 유구의 중복성과 당위성을 해결해 나아가 함을 강조하였다. 중심신앙대상이 변화하거나 공간이 확대 축소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고고학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시론을 설정해 보았다.

3. 아울러 출토되는 유물의 기준과 정리방법을 기와를 기준으로 타날판 복원의 방법이라는 시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불교유적의 시간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고자료는 기와라 생각되며, 자기류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유물이지만 출토양이 방대하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문화적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불교사상과 교리의 내용과 유적의 현상을 해석하는 연구방법을 몇 가지 사례로 시론하여 보았다.

유적에서 드러나는 현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교고고학의 범주전체를 고려한다면 불교유구에 해당되는 것도 모두 문화적 해석을 위한 텍스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형태로 제시해 보았다.

이 발표문은 학문으로서의 불교고고학을 정립하기 연구방법의 시론적 내용인 만큼 많은 보완과 협동연구가 필요함도 부연해 둔다.

1. 머리말

佛敎考古學¹⁾이란 사전적 의미로 불교유적이나 유구에 대한 현상을 밝히기 위한 고고학적 방법의 하나라는 의미로 함축될 수 있다.¹⁾ 학문적 범주로는 역사고고학 중에 ‘종교고고학’ 영역이며 종교고고학에서 ‘불교’와 관련된 제 유적이나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와 해석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1) 坂詰秀一の 편, 『日本考古學小辭典』, newsience社, 1985.

일본에서의 사전적 정의는 종교고고학의 한 분과로, B.C 6세기 인도에서 석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의 역사를 고고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며 시간적으로는 B.C 6C부터 지금까지 공간적으로는 불교의 전래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 다루는 불교고고학이란 한국불교고고학으로서, 한반도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불교전래시기인 4C~현재까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루어지는 범주는 한반도 불교역사와 관련된 모든 요소로, 부동산적인 사원(건물과 탑등 유적과 유구)과 동산적인 불교설치물(불상, 불구, 경전및 장엄물)로 대별할 수 있겠다.²⁾ 이는 고고학의 일반적 분류인 ‘유적,유구’와 ‘유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한반도의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인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寺址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들이 조사되었으며, 양적으로도 고고조사의 한 축을 이룰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인접학문도, 역사학, 불교사학 등의 문헌사와 함께, 건축사, 미술사, 지리학, 자연과학 등 그 폭은 매우 넓으며, 이는 현대 고고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동일하다.³⁾

일견하면 불교고고학의 질적인 부분도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적으로는 연구분야의 주체가 없는 형태임을 지적하면 선학들에 대한 결례일까? 근래에 시리즈로 간행되는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에서도 1권과 3권에서 불교유적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은 건물지유적의 범주에서 권위 건물인 초석건물의 영역 중에 개별사지의 고고현상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⁴⁾

즉, 불교유적의 고고학 조사성과에 비해 불교고고학의 정의처럼 ‘고고학적으로 불교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단계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 것을

2) 石田茂作監수, 『新版佛敎考古學講座』 1~7, 1975~77.

『불교고고학강좌』에서는 일본불교고고학의 체계를 사원, 탑, 탑과, 불상, 불구, 경전, 경총, 분묘 등 6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총과 분묘등 다소 한반도 불교와 생소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불교고고학의 범주를 사원, 탑, 부도, 불상, 불구, 경전,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이들 범주는 다시 자료적 성격에 따라 부동산적, 동산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세부적인 범주설정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3)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 I』의 최성락의 「한국고고학 조사 · 연구방법론 진단」과 이남규의 「한국중세고고학의 현황과 과제」에서도 유사한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 I』, 2005.

4) 한국고고학의 범주 구분이 선사시기와 유구유형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같은 현상을 문제로 하여 대안으로서의 연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I. 불교고고학 대상의 특성과 연구방법 시론

1. 불교유적의 특성 및 연구영역의 설정

불교고고학은 당시의 문화양상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불교유적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고학 조사방법도 복합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불교역사를 규명한다’는 전제의 불교고고학을 위해서는 문화적 해석이라는 영역의 연구방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표와 같이 삼원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사유적과 역사유적이라도 문헌 등 인접학문의 근거자료가 미약한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해석이 많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되고 시,공적 현상에 대한 보고만을 명확하게 하려는 경향도 있어왔다.

표	일반유적 (선사)	역사유적 (역사/종교)-불교유적
1 공간적 현상	고고학의 조사 방법론	고고학의 조사 방법론
2 시간적 현상		
		+
3 문화적 현상	(유적의 해석)	(불교)역사규명을 위한 문화 해석

5) 머리말에서 언급한 불교 유적의 범주와 유물에 대한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사보고서의 고찰부분은 유물의 형식분류나, 유적의 시간적 특징에 따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1. 공간성

- 여러 동의 건물지가 하나의 군(사지)을 이룸.
- 군(사지)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데, 변영도에 따른 변화(사세), 신축 퇴락의 요인에 의한 변화, 사상에 따른 중심영역 변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배치에 대한문제: 중심사역과 주변사역의 고고학적 설정과 지층적 해석문제 이동에 대한문제: 중심사역이 어떤 이유로 변화 또는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2. 시간성

- 공간상의 변화 중, 소실과 중건 등의 사건은 중복현상으로 드러나고 규명됨.
- 전체 공간에서 군(사지)의 존속기간이 다른 유적에 비해 동일목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므로 중복현상 규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1+2

고고학적 현상(구조물 현상규명, 매납유물의 특성규명,)

3. 문화성

- 종교적 필요에 의해 건립된 유적인 만큼 변영도나 신축, 퇴락 등은 일반요인보다 사상에 따른 변화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불교사상(불교 의식, 전통, 관련경전 내용을 통한)적 해석을 통한 문화해석이 필요.
- 1.2 현상의 사유에 대한 종교적 접근해석의 필요성
- 공간현상의 추정 및 해석과 종교적 용어와의 결합
(가람, 도량의 경전적설명과 고고학현상과의 대비)
(선종가람과 교학가람의 고고학적 현상과 경전적설명의 대비)
(지진, 진단, 밀교작단 등 사상에 따른 구조의 변화)

이러한 고고학의 정체성⁶⁾에 대한 부분은 실제 선사고고학과 역사고고학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즉, 역사(종교고고학, 불교고고학포함)고고학은 ‘역사에 대한 증명방법으로서의 고고학’을 모두 배제할 수

6) 최성락, 앞의책 p9

만은 없으며, 따라서 위 표에서 제시한 ‘문화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의미부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역사고고학적인 조건에서 ‘불교고고학’ 대상은 다른 유적에 비해 다음과 같은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영역을 세분하고 이에 따른 조사방법이나 문제점을 시론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위 표의 영역에서 ‘공간성’과 ‘시간성’은 고고학 연구방법에서는 일반론적 현상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으므로⁷⁾ 여기서는 특히 불교유적에서 대두되는 시, 공간적 고민부분만 간략하게 다루고, ‘문화성’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2. 불교유적의 시, 공간적 해결을 위한 고고학 방법 시론⁸⁾

1) 연표작성의 중요성

불교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역사시대의 산물인 만큼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로 구별되고, 물질자료는 다시 지상자료(傳世)와 매장자료로 구분할 수 있겠다.⁹⁾

7) 불교유적은 불교의례 공간 특성상 개별적 유구(건물지, 보도, 담장, 배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관관계를 평면상으로 규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복합평면을 다시 시간의 중복성과 연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명을 위해서는 사역 전체(경내의 구 지면 영역)까지를 조사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시간과 경비를 동반하는 것인 만큼 조사선호대상에서 기피되는 현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2009년 문화재보호재단 제7회조사원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지및 건물지조사와 출토유물 정리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정리하였다.

9) 불교고고학조사법에서의 자료의 종류와 그 활용편에서 자료의 성격을 대별하고 있고, (坂詰秀一, “佛敎考古學調査法” 고고학라이버러리2, 뉴사이언스사, 1980.), 사지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불교유적인 사지와 문화재(유물)의 특징을 이와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위의 표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연구영역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표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 연표작업은 우선 시간적 공백을 매우기 위한 것으로, ‘문헌자료+고고(물질) 자료를 통한 연표’를 조사 전과 조사도중에 지속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¹⁰⁾

특히 사명이 알려진 경우 문헌자료상의 시간별 사건을 통해 불교유적의 개략적 중복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전 준비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찰유적은 대부분 사찰명과 그 연혁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寺名을 모아놓은 사료나 본사 중심의 寺誌자료 등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들 문헌에는 대부분 창건, 중건, 화재 등 주요 연혁이 밝혀져 있으므로 이들 자료들을 최대한 검색 활용하면 조사유적의 ‘시간적인 흐름’을 사전에 읽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의 문헌검토는 현장에서 중복된 건물지들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제 이 과정은 조사 전 단계에서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검토되더라도 유적조사팀이 상식적인 선에서 자료를 개략화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특히, 사명이 있는 사지를 조사하는 경우, 고고조사자가 해당 불교유적의 교통로 검토는 물론 그 사찰의 종교적 특징, 사회적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접학문인 불교사 등의 문헌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세세히 연표화 할수록 조사과정에서의 해석은 물론 조사결과와 문화적 의미부여에도 충

유사한 형태로 구분 한 바 있다.(문화재청,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사지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2010.)

10) 이 작업은 사명이 알려진 경우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명사지의 경우 조사 전에 문헌적 연표는 작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사도중에 얻어지는 고고자료의 내용들을 연표화하여 적어도 시간적 중복관계 규명과 편년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해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¹¹⁾ 그리고 이렇게 의뢰하여 얻어진 자료는 사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만이라도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조사는 물론 현장에서 유물의 검토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¹²⁾

◇ 심원사지 연혁-유점사 본말사지(1940년대 작성) 연혁편 중 심원사 부분만 정리-

연 도	구분	사 건	고고자료 추가사건	비고
647년	통 일	영원조사-영원사, 법화사, 흥림사, 도리사를 영주신(보개산)에 개창	창건	진덕여왕 원년 3사는 고려대 폐사
859년	신 라	己卯 범일국사 흥림사 재창 “천불을 조성”	재 창	860 성주암 지장암 남암 개창
1320년	고려	석대암사적비 건립(1307년 친)	커묵문막새 어골문 평와	원 도술 각 건물지 회하층
1393년	조 선	“심원사”가 화재로 소실		조선 태조 2년
1396년	임 란	병자 무학왕사 3황-영주산을 보개산으로, 흥림사를 심원사로 개칭	3황 3자건물지 4기 층에서 ‘무학’명 와	
1592년	전	乙未 印崇 正仁 명선의 겹희를 소제하고 4황	4창	선조28년
1689년	임 란 후	己巳 朴信尤 오충식탑을 건립	萬曆34年(1606)銘瓦 康熙5年(1666)銘瓦 康熙28年(1689)銘瓦 雍正12年(1734)銘瓦	숙종14년
1895년	구	癸巳 權信 李正樺 일본제 법종을 헌납		고종30년
1906년	한	병오 삼궁박씨 심원사에 28,583평 헌납		고종광무10
1907년	말	정미 9월11일 250칸 당우, 1602위 불상이 병화	의병근거지 전소	순종 원희원년
1908년		북구 불사 시작	5창	
1910년		경술 함남 북청군 大同寺로부터 목불8위 이안		순종 원희4년
1918년		무오 주지 유연수-초암 화백이 천불조성불안 율축 주지 홍월연-범무이진학과 절동편의 비	大正 銘 막새	대정7(기록)
1925년		2, 부도를 절입구 영원교 부근광장으로 이전		대정25(기록)
1927년	일 제	丁卯 주지 이진학이 보통감습소 개원		소화2년(기록)
1928년	제	무진 주지 이진학 영원 만야 불이 신흥 4교량 가설, 도로정비		
1930년	강	경오 주지 이진학 사내 석계 신축 柏子석수		
1931년	정	신미 이진학 사원건물 내부수리,		
1931년	기	총 2구 150근불안		
1933년		癸酉 신년 김씨 보안화 토지3,779평 회사		
1935년		대방 전면 초자찰신설		
1935년		화산경원 설립-교종양종을 전흥		
1939년		己卯 천불신 봉향각을 건축,(?) 순은 향화로 은대기 서주	6창? 근대기와	

- 11) 그러나 문헌자료를 유적과 비교 검토할 때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찰은 삼국시대부터 유명한 고승의 영향 하에 건립되었다는 창건 기사를 명기하고 있다. 이들 창건기사 중 일부는 비슷한 연대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설화적인 연대를 밝히고 있어 실제 고고학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국시대의 가람...’으로 표현되는 기록들은 삼국시대의 가람이 왕들의 전유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사원의 삼국시대 창건설은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12) 특정시기에 그 사찰에 주석한 왕사, 국사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특정시기에 사세(유구)가 확장되는 현상과, 주요유물이 분포하는 상황 등도 해석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다.(국사의 하안소 지정과 이에따른 그 시기의 사원의 중수및 확장 등의 사례)

연대구분	연도	사건	고고 자료		비고
해	9c	백장사 창건 상층석탑 석등			
	10c		통일기 막새		
고려	11c		‘辛卯三月三日’銘瓦		871, 931, 991성릉, 1051문릉, 1111 예릉
	12c		고려초기막새		
	13c				
	14c	백장사 금동불좌상 1330년대?			
	15c		‘成化’(1465-1487)銘瓦		
조선	1592년		1468년	세조	실상사 폐허
	16c	萬曆13년 항로(1584)	‘萬曆17年(1589)’銘瓦	1385, 고려 우왕 1444, 세종 1505, 연산군 1565, 영종 1625 안조	
	1592년	임진왜란 폐허	百丈寺乙丑三月成造		
	17c		‘萬曆30年(1602)’銘瓦		실상사 승려가 백장사에 기거
			‘崇禎2年(1629)’銘瓦		
	1657년	順治14年 화재 전소 (실상사중흥사적원뿔도설)			
	1658년	효종9년 묘사재건 전라4동 방사8동 왕자8-9개(1679년 이전까지)			
	1660년		‘順治17年,(1660)’銘瓦		
	1679년	화재 백장사 재회를 실상사 舊地로 옮김	올이년 화재		실상사 중건
	1680년	신축 및 백장암으로 사적 변화			
근대	1682년	화재?			
	18c				
	19c				
	1868년	화재 암자를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옮김	최후 건물지로만 존속		
	1871년	백장암 이전 신축			
	1900년	백장암 화재			
	1901년	백장암 신축			
현대		변와 乙丑년(실상사사적1951)			

물론 지나친 불교사 자료와 경전에 대한 의존은 자의적 해석을 불러 올 수 있다¹³⁾는 지적도 있으나, 인접학문의 보다 적극적 참여는 불교사 해석이라는 결론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헌적 연표를 기준으로 지상자료에 대한 보강은 물론 발굴조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매장의 시간적 추이를 보강한다면 시간의 지속성이 다른 유적에 비해 길고 변화상도 심한 불교유적의 해석에 보다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¹⁴⁾

13) 坂詰秀一, 앞의 책

14) 층위적인 발굴조사에서 수습되는 명문과 같은 자료는 중수시기나 변화시기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고학적인 연표와 문헌적 연표와의 비교를 통해 유적의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2) 고고조사 방법의 유의점

(1) 현장조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리드 설정이다. 한국의 사찰 유적은 대부분이 남-북을 축선으로 하고 있으므로¹⁵⁾ 그리드 설정도 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처음 설정된 그리드를 지속적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하층에서 나타나는 건물유구들의 방향에 따라 별도의 독을 설치하거나 그리드를 변경하는 탄력적인 방법도 조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제토되는 흙의 운반을 위한 동선 때문에 처음 설정한 그리드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지 동선만을 위한 것이라면 좌표를 제외하고는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유구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노출되는 건물지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전체 가람배치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가람은 종교적 특성상 불부인 의례공간과 승려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¹⁶⁾ 또한, 가장 중요한 의례공간인 대웅전(금당)의 위치와 이와 관련한 가람의 축선을 빨리 판단하여야 축선을 중심으로 조사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선행한 후에는 창건기의 유구(최하층 유구)와 폐사기의 유구(최상층 유구) 양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헌자료연표와 물질자료연표와의 비교작업도 병행하면서 중복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종합적 판단없이 상층유구를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폐사 시기의 현상과악에 편중되어 하층유구 또는 조사목적과 관련한 시기에 해당

15) 지방 사찰이나 암자는 지역에 맞는 축선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16) 사세가 기운시기의 경우 생활공간과 의례공간이 공존하는 인법당의 경우도 나타나지만, 작은 암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구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유구는 마무리 할 수 없거나, 막판에 조사 시기를 연장해야하는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문헌적 내용과 현장의 여건(트렌치나 피트로 몇 개의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¹⁷⁾

대부분의 불교유적이 그러하듯이 복잡하게 중복된 현상을 규명하려면 하층유구의 조사를 위해 상층유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고민에 봉착하기도 한다. 현재는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이 보존, 정비를 위한 학술적 조사성격이 많은 만큼 최소한의 유구훼손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¹⁸⁾ 그러나 보존, 정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층유구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필수적이어서 상호 모순적인 이 부분의 해결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⁹⁾

(3) 이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폐사기의 대응전 유구와 창건기의 금당 유구가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즉, 가람공간의 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사원의 경우 대부분 산지지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사원의 창건기 가람이 전성기의 가람보다 훨씬 작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의례공간보다 뒤쪽이나 앞쪽에 창건기의 주요 유구가 위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예는 대구 부인사의 경우 앞쪽에서 뒤쪽으로 중심사역²⁰⁾이 이동

17) 예)고려시대 특정유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조선시대의 유구만 조사한 경우

18) 국내의 사적지 정비를 위한 조사는 대부분 최소의 훼손을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도 보존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지침에 명시된 부분이기도 하다.

文化庁文化財部記念物課, 『史蹟等整備のてびき-1.總説編, 資料編-』, 同成社, 2005

19) 군위 인각사의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과정은 고려시대 일연스님의 하안소였던 고려말의 사세가 정비기준이었으나, 그 하층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사역이 더 웅장한 규모를 갖춘 것으로 드러나 정비계획을 이원화하여 수정한 사례도 있다. 이는 하층유구 조사에도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성주 심원사지나 남원 백장암²¹⁾의 경우처럼 뒤쪽에서 점차 넓은대지인 앞쪽으로 이동하는 예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구 복지장사나 군위 인각사의 경우처럼 좌-우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층유구와 하층유구 간의 중심이 이동될 수 있다는 점²²⁾은 지방 사원유적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일 대웅전과 같은 주요건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대웅전과 세트를 이루는 전세되는 지상자료인 석조 구조물(석탑, 석등)은 시기를 달리하는 대웅전에 맞추어 이동되어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음도 유념하여야 한다.

복지장사의 쌍탑은 현재의 대웅전지로 이동된 것으로 토층에서 확인되었고, 부인사지의 쌍탑도 창건기 축선에서 벗어나 고려시대 대웅전지 앞에 재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원 백장암의 경우도 원래보다 높은 지역에 재조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²³⁾

이러한 현상은 불교유적에서 지상에 전세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탑과 이를 장엄하는 석등, 배례석 등이고, 이들은 중심사역(의례공간)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중심공간이 이동할 경우 대부분이 함

20) 중심사역이란 종교적 의례행위의 중심공간 즉, 불부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21) 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학연구소, 남원시 『남원실상사백장암상층석탑주변3차발굴조사 약보고서』 2005.7
 22) 짧게는 10m 내외에서 길게는 4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상, 하층 유구가 분포하는 경우가 있다.
 23) 복지장사의 경우 통일신라 하대의 석탑으로 편년되고 있음에도, 탑지 하층에서는 14세기로 편년되는 일회문 막새가 출토되었으며, 결과 고려이후의 대웅전지의 축에 맞도록 재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학연구소, 『팔공산복지장사-대웅전지발굴조사』, 1996.)
 부인사지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의 금당지의 우나구 시설위에 통일신라시대의 탑으로 편년되는 쌍탑이 다시 한층의 기단을 마련하여(3층기단) 이동된 고려시대 대웅전에 맞게 재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북대학교박물관, 『부인사지 3차발굴조사 보고서』, 1993.)

게 해체되어 이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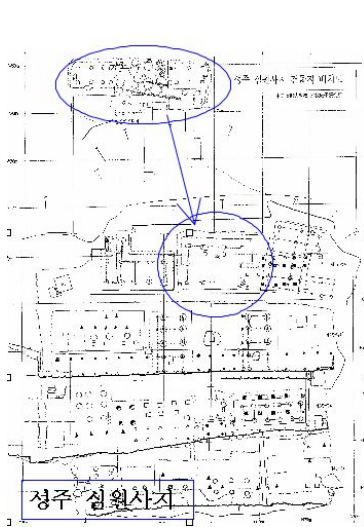


그림 41 성주심원사지 금당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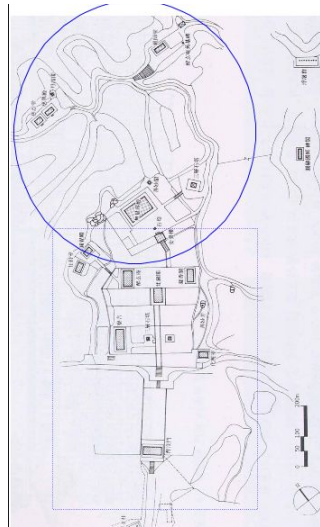


그림 42 부석사의 창건가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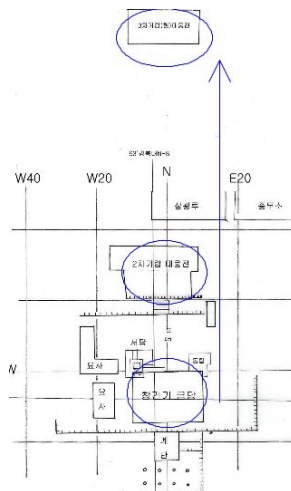


그림 43 부인사 중심건물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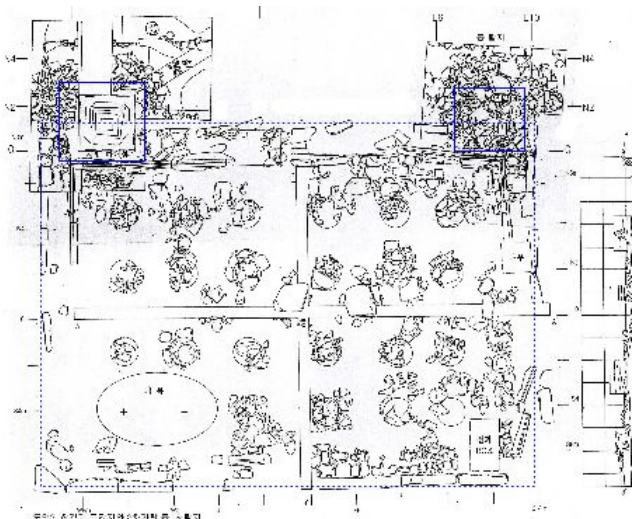


그림 44 부인사창건금당과 탑의 중복

또 하나 일본고고학에서는 사역외곽의 점이지대를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교장법으로 매납된 화장유적을 불교유적과 관련있는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교유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일 수도 있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불교유적의 점이지대에 분포하는 불교관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불교유적의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⁴⁾

24) 군위 인각사의 발굴조사에서 대규모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확인되었고, 그 남쪽에 위치한 구릉에서는 바닥시설만 남은 통일신라시대 석곽묘흔적과 토기편이 확인된바 있듯이, 불교유적 주변의 분포유적과의 관련성도 앞으로 연구해야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4) 개별유구(건물지)에 대한 조사

전체적 상황검토는 늘 염두에 두면서 개별유구에 대한 조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개 하나의 건물유구는 단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실 후 곧바로 재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별유구는 중심영역의 유구일수록 폐사되거나 중심영역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중복현상이다. 따라서 사원유적의 대부분은 하나의 건물지가 최소 2시기, 복잡한 경우는 4~5시기의 중복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전에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 ‘연혁표’ 보다 더 많은 중복현상이 현장유구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에 작성된 ‘연혁표’에 이러한 상황을 첨가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한다. 각 시기의 적심석이나 성토층에서 확인되는 명문와의 자료가 있다면 연혁표를 완성해 나가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여러번 중복되는 유구양상에서 고민되는 것이 각 유구의 시기와 그 기준이 되는 유물을 파악하는 일이다. 사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이 기와와 자기류인데, 특별한 매납 유물을 제외하고는 소편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유물에서 절대편년을 결정할 수 있는 명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유물의 상관관계만으로 그 시기를 추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기단의 성토층이나 적심석에 포함된 작은 와편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기와나 자기류²⁵⁾에 대한 비교적 넓은 편년관은 조사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만, 중복된 건물지 층위 간의 유물을 잘 정리 검토한다면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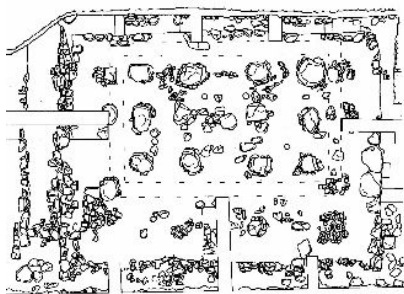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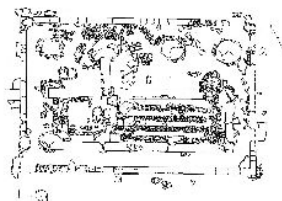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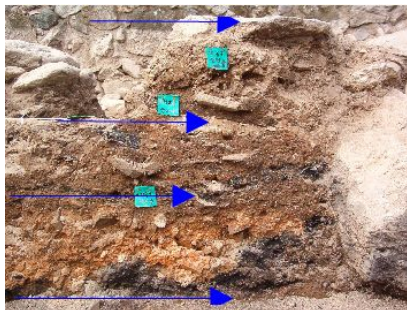
25) 불교유적에서 자기류보다 기와류의 자료가 훨씬 자료도 풍부하고, 자료의 층위성도 명확한 경우가 많다. 중심사역에서의 자기류는 의기류가 대부분이므로 편년기준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세밀한 시,공간적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²⁶⁾

건물지는 일반적으로 ‘기단’위에 건립되며, 별개의 유구로 노출된다. 기단은 외면에 치석된 별도의 부재를 갖추거나 자연석 또는 외적의 형태로 쌓아 마감하는데 높이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단의 내부는 판축(성토)으로 다져서 건물의基層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기단토 위의 유구 중복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선대의 유구를 일정면 정지하고 그 위에 재성토하여 후대의 유구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일정한 기단토 레벨 위에 적심석과 초석의 위치만 달라지는 형태로 노출되는 경우이다.²⁷⁾



대웅전지의 중복(연천 심원사지)

26) 따라서 각 유적지마다 층위 간의 유물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축적된다면, 비교적 넓은 시간 폭을 가지고 있는 기와나 자기류 유물의 편년 기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7) 이러한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시대를 달리하면서 높이를 높이는 것과 대비한다면 선

시기를 달리하면서 기단 성토층이 높아지는 건물지의 경우 각 시기별 구지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구지면은 5mm 내외의 갈색층이거나 딱딱하게 굳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토층에서 확인된다고 하여도 건물지 전체에서 확인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구지면의 형성을 기준으로 몇 시기의 유구가 중첩되었는가를 확인할 때도 기단토나 적심석에 포함된 유물이 기준이 된다.

이 때, 지면이 확인되지 않는 지점의 비슷한 레벨의 기단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선대의 것으로 해석해야할지, 아니면 후대건물의 폐기유물로 해석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해당건물지의 편년은 물론 전체 가람양상의 해석에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적심석 축조와 관련된 유물이나 그 적심석을 사용한 건물이 폐기된 층의 유물이라는 해석에는 신중해야한다..²⁸⁾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원은 해당 건물지의 중복현상이 확인될 때마다 건물지 전체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성토층의 중복현상이 없는 경우는 대개 동일 레벨 상에서 여러 시기의 적심석이 중첩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동일 평면상에서 각기 다른 건물평면을 완성하는 기준은 적심석의 축조법, 석재의 규격 등의 방법과 전체 평면구조가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는 형태(부인사의 예)로 구분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중복된 적심석 내의 출토유물 비교와 적심석간의 미세한 레벨수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성토층의 변화가 없는 유구에서 여러 적심석과 함께 출토되는 유물은 토층의 구분이 없어 시기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 경우, 시기의 선, 후보다

대의 유구층을 깎아서 정비하는 형태로 비유할 수 있다.

28) 연천 심원사지 및 부인사의 사례



적심석간의 유물과 성토층의 유물을 비교하여 건물 평면을 완성한 후 다른 건물지나 기타 자료에서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기단외곽에 설치된 우낙구 시설 및 배수시설과

같은 구조에 대한 조사이다. 우낙구 시설의 규격은 건물지붕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이다. 고대사원일수록 우낙구의 시설이 뚜렷하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시설에 대한 의도성이 약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낙구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기단외곽 하층의 토양을 조사하면 장기간 빗물에 노출된 모래층이 얇게 일정 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우낙구 시설은 맞배 지붕의 경우 우낙구 분포범위(기단에서 우낙구까지의 거리)가 정면과 측면이 서로 다른 치수를 보이며, 팔작지붕의 경우는 정면과 측면의 거리(기단에서)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외 건물의 구조에 대한 해석은 가급적 고건축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서 단독건물에서 연결되는 건물의 구조나 퇴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²⁹⁾

(5) 출토유물의 정리방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의 기단에 건물지가 시기별로 중복되었을 경우 기단형성층과 적심석에서 확인되는 유물 편으로 그 관계를 규명해야 할 때가 있다.

29) 양양 낙산사의 행랑과 누각의 결합형태에 대한 해석문제.

법이 공식, 비공식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들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각 조사단마다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는 발표자의 정리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기와의 연구방법으로 많은 속성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그 많은 속성을 모든 기와자료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작 속성 중에서 변화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의 속성(예를 들어 타날판 문양의장, 내면하단의 각기조정, 통의형태 등)만 염두에 두고 정리하여도 시간의 절약은 물론 분석에 있어서도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³²⁾

여러 속성 중 '타날판 문양의장'에 대한 분석은 유적의 위격해석과 유적의 편년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다.

본격적인 발굴조사 이전이라도 지표상의 유물(기와)을 최대한 수습하여 타날판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타날판의 복원은 단판이나 중판의 타날판은 작은 편만으로도 그 형태나 분류가 가능하지만, 8세기 이후 정형화되는 장판은 최대한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① 타날판의 복원방법은 채집된 외편을 간단하게 외면만 세척하여 비슷한 문양군으로 분류한다. 넓은 현장 한 공간에서 개략적인 문양의장을 분류한다.

대개 장판의 문양의장은 사격자문, 격자문, 집선문, 어골문, 거치문, 복합직선문, 직선중호문, 곡선중호문의 형태로 분류되며, 나열한 순서는 시간성도 대략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이렇게 현장에서 분류한 후, 보고서에 수록할 자료를 대상으로 나머지 속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② 이후, 비슷한 문양군을 보다 세분한 후(예를 들면 어골문이라도 사선의 각도나 밀도, 중앙부의 대칭현상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타날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기와의 상단부, 하단부, 중앙부(내면의 포목묶음 혼으로 중앙부를 구분할 수 있다)별로 모아서 건탁 혹은 유탁의 방법으로 탁본한 후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 타날판을 복원한다. 동일한 타날판이라면 이들 상,중,하부의 편에서 얻어지는 문양의장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2/3정도는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

③ 이러한 방법으로 복원되는 타날판의 종류를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유구를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늘 눈에 익히도록 한다. 유구층으로 갈수록 수습되는 외편은 시간적 일관성을 가지므로 보다 쉽게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구 내부를 4분법에 의해 매일 일정부분 삭토할 때 마다 층위상 또는 레벨상으로 수습한다. 이때 가급적 많은 양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편이라도 표면만 세척한다면 연대나 사망같은 자료를 수습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때 조사원은 전적으로 세척작업만 담당할 수 없으므로 인부 중에 1~2명을 고정적으로 세척작업에 배치하여 표면만 우선적으로 확인한다³³⁾.

④ 위의 방법으로 타날판을 분류하면 유구의 내부조사를 마치기 전에 대부분의 타날판이 완성된다. 그런 후 이들 복원된 타날판을 활용하여, 유구내부에서 수습되어 1차 세척된 자료들을 현장에서 빈도수를 분석하면 2~3종의 특정 타날판이 특정 유구 또는 특정 시기 층에 집중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본 결과 인부 2인을 활용할 경우 당일에 수습되는 대부분의 기와를 1차 세척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넘쳐나지 않은 조사원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철저한 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유물정리는 실내팀(정리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면 보고서를 기술할 때에도 일관성이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층위 상으로 구분된 중복관계(시간적)에 대입하면 상대적인 타날판의 편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은 편이 명문이라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작성한 연혁 표에 추가시켜 최소한의 변화 시기를 파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동일한 어골문계 문양의장이라 하더라도 층위 상의 유구와 구분한다면 시대가 내려갈수록 어골문이 복잡하거나 복합문양으로 변화하는 형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전지역에 대한 편년은 아니더라도 해당유적의 상대편년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전체적인 편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이 후, 새로이 추가되는 타날판의 유형은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이미 복원된 타날판은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해당유적에서 출토되는 빈도수만 야장에 체크한다면 대부분의 자료를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양의 기와를 연구실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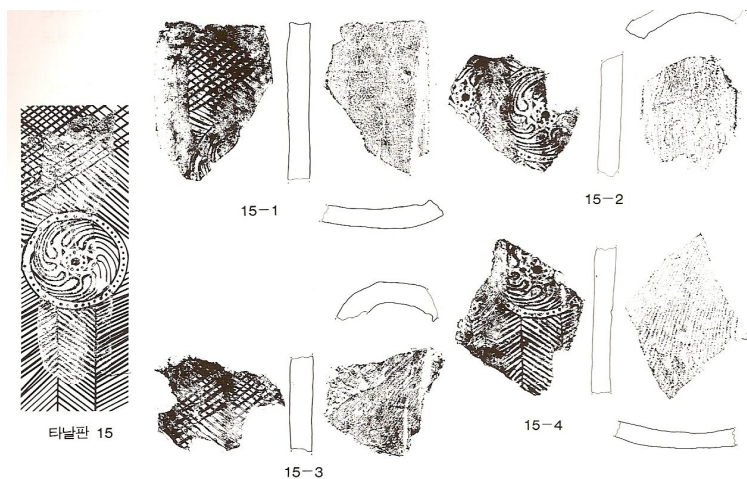


그림 49 타날판 복원 예(경북대학교 인각사 발굴조사보고서)

III. 고고자료의 문화적 해석을 위한 연구방법 시론

경전의 지나친 의존은 고고학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전혀 활용이 안되는 점도 지적해야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불교고고학의 불교역사규명을 위한 전제에 부합하기 위한 시론으로 불교문헌 자료 특히 불교문화의 모태적인 경전부분에서 보이는 부분과 내용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가람의 용어적 문제와 고고현상

사찰, 사원, 사 등의 용어는 흔히 불교와 관련한 학술적인 용어로 풀이되고 있으며, 사전적인 해석도 일반학술적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7세기 대에 중국에서 편찬된 『법원주립』³⁴⁾에서는 불교적인 정의로서의 불교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고고학적 해석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법원주립 39권 가람편의 술의부에 그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데,

대개 가람(伽藍)이란, 옛날 서역(西域)에 금을 갈아서 처음으로 복의 터를 마련하였고, 동천(東川)에 집을 지어 마침내 깨끗한 업을 빌었다. 그러므로 보탑(寶塔)에는 그 광명을 모으고 정사(精舍)에는 그 형상을 그려 삼천세계에 두루 채우고 1만 년 동안 맡아 지킨다. 고해(苦海)의 배가 되고 신근(信根)의 줄기가 되어 그것을 보면 곧 마음을 내고 그것을 보고는 돌아가기를 잊어 복을 증익시키

34) 당나라 도세(道世)지음. 경·논 등에 말한 여러 가지 사항을 분류하여 기록한 불교의 일대류서(一大類書)로 100권으로 구성됨. 이를 짓는데 10년이나 걸려 670년에 완성. (동국역경원, 『불교사전』, 1961.)

고 선(善)을 일으키니, 이것을 일컬어 가람이라 한다.

고덕(古德)의 사고(寺誥)에 그 이름이 많다. 혹은 도량(道場)이라 하나니, 즉 생(生)이 없는 조계(埵)이란 뜻이다. 혹은 절(刹)이라 하나니, 즉 공정(公廷)이란 뜻이다. 혹은 깨끗이 사는 집(淨住舍)이라 하고, 혹은 법을 함께 하는 집(法同舍)이라 하며, 혹은 세간을 벗어나는 집(出世間舍)이라 하고, 혹은 정사(精舍)라 하며, 혹은 청정하기 끝없는 동산(淸淨無極園)이라 하고, 혹은 금강 같은 깨끗한 국토(金剛淨刹)라 하며, 혹은 적멸(寂滅)한 도량이라 하고, 혹은 악을 멀리 떠나는 곳(親近善處)이라 한다. 이것은 모두 그 뜻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각각 나타냄이 있다.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절은 도량에 대한 정의이다. 이 도량은 불교공간의 중심영역인 불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심영역에는 생명과 관련된 시설 즉, 정원이나, 연지같은 구조물이 배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실제 한반도에서 통일신라 말기까지 교학적인 가람에서 중심영역인 불부의 구조물은 신앙대상 외에는 다른 구조물이 배치되지 않는 것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에서 적어도 7세기에 중국에서 불교사전적으로 편찬된 이 경전은 당시의 동아시아 사원 중 불부(중심공간)에 대한 사고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2. 가람의 구성과 문화적 해석 문제

흔히 교학적 가람의 해석에 있어 학술적으로는 신앙공간(중심영역, 불부)과 승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간배치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 마다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되고 있다.

이 문제 또한 5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진 『마하승기
율』³⁵⁾이란 율장경전에서 고고학적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전은 스님들
의 엄격한 율에 대한 것으로 그 중 권33의 [명잡송발거법]에 불부와 승부(승
지)와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³⁶⁾

“탑을 세우는 법은 기단(基壇)의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고 원형
으로 2층을 쌓되 사면에 각이 나오도록 한다. 위에는 반개(盤蓋：
屋蓋)를 얹고 그 위에는 길게 윤상(輪相：寶輪)을 세운다.....중
략.....승지(僧地)에서는 불지(佛地)를 침범하지 말고 또한 불지(佛
地)에서는 승지(僧地)를 침령하지 말라.중략.....주변에는 담
장을 쌓아 격리하고 서쪽과 남쪽에는 시탑(侍塔)하는 승방(僧房：
塔殿)을 지어야 한다. 승방(僧房)의 오수(污水)가 불지(佛地)에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또한 불지(佛地)에서 나오는 물도 승방(僧
房)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중략.

이러한 소의경전을 토대로 할 때, 적어도 5세기 전까지의 가람은 불지와
승지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학가람은 초
기의 인도, 서역 등지에서 보이는 가람형태를 계승하고 있으며, 『마하승기율』

35) Mahāsāghikavinaya. 40권. K-889, T-1425. 동진(東晉)시대에 불타발타라
(Buddhabhadra, 佛駄跋陀羅)와 법현(法顯)이 416~418년에 양주(揚州) 도량사(道場
寺)에서 번역. 4대 광률(廣律)의 하나로서 다른 광률이 상좌부 계통의 부파에서 전승
된 계율인 반면에 마하승기율은 대중부(大衆部) 계통의 율이다. (동국역경원, 『불교
사전』, 1961.)

36) “作塔法者 下基四方 周欄楯 圓起二重 方牙四出 上施槃蓋 長表輪相 ... (若言世尊 已除
貪欲 瞋愚癡 用是塔爲 得越比尼罪 業報重故 是名塔法 塔事者) 起僧伽藍時 先預度好
地 作塔處 塔不得在南 不得在西 應在東 應在北) 不得僧地侵佛地 佛地不得侵僧地 若
塔近死尸林 若狗食殘 持來汚地 應作垣牆 應在西 若南 作僧坊 不得使僧地水 流入佛
地 佛地水 得流入僧地 塔應在高顯處作 不得在塔院中 浣染衣 ...” <마하승기율(摩訶僧
祇律)> 권33 ‘명잡송발거법(明雜誦跋渠法：대정장22, p. 498a6)

』에서 설하고 있는 가람에는 불지와 승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 두 지역은 오수도 섞여서는 안된다는 료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내의 삼국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에 대한 해석이나, 坂詰秀一の 초기 동북아시아의 가람배치도는 모두 『마하승가율』의 내용에 의거 편재된 배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회랑설치의 목적과 회랑에 의해 구분되는 공간구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구성에서 회랑의 주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회랑의 주요도는 선종사상의 등장과 함께 성주사 전신단계 가람배치³⁷⁾처럼 좌, 우측 부분부터 해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승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칠당가람체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임은 자주 지적되는 건축학적 이론이다.

이렇듯, 회랑에 의해 불부의 신성함이 지켜지는 것이 교학적 가람이라면, 일반 고고학적 해석인 ‘능사 서편회랑의 공방구조 배치’ 같은 공간 해석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밀교경전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사천왕사 가람의 구성에 대한 연구도 좋은 본보기이다.³⁸⁾ 건축학적인 논문이기는 하지만, 사천왕사의 발굴결과 문제가 되는 금당 뒷쪽의 두건물의 의미를 문두루비법과 관련한 의례공간으로 비정하고 실제 어떠한 의례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연구인데 이 글에서도 밀교경전에서 발췌한 의식방법과 이에 따른 오방사상과 가람공간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어 고고학 해석에 도움을 주는 연구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밀교적 도상은 불상의 배치방법에도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통일신라의 특징인 쌍탑의 가람구성을 이해하는데 법화경의 건보

37) 동쪽회랑일부가 후대 건물지(식당?)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은 칠당에 해당하는 후원(식당), 육실, 선방 화장실, 이 좌우측 회랑부에 자리하는 칠당가람의 구조에 의한 변화이다.

이는 경전 상에 석가 생존시 기원정사에 필요한 시설을 강조하는 경전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38) 김상태, 『신라시대가람의 구성원리와 밀교적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 대학원건축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4.

탐품을 이용한 해석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쌍탑구조와 법화경사상은 경전내용이 공간구성에 있어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가람의 활용을 경전에 근거하여 변화시키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하겠다.

이렇듯 몇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고조사에서 확인되는 현상을 불교본래의 격식에서 찾아 대입하면 보다 원론적인 해석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표의 작성과 함께 문헌연구자나 불교사연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불교유적 공간상의 유물분포와 문화사적 해석(지진구, 진단구)

다음으로 건물지 기단 및 주변에서 확인되는 지진구, 진단구 유물의 분포 및 위치에 대한 고민이다.

현재 학술상으로는 지진구, 진단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경전의 작법구조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지진구와 진단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⁹⁾

지진구와 진단구 관련된 소의경전은 작단의례에 관한 『불설다라니집경』⁴⁰⁾이 대표적이다. 이 경전은 7세기경에는 중국에 번역되어 통용되었던

39) 지진구는 그야말로 땅을 진압하기 위한 의례물이고, 진단구는 단을 진압하는 의례물로 해석하여야 하며, 내용물도 불교장엄적인 것과 공양적인 것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40) 당나라 때 아지구다(阿地瞿多, Atigupta)가 654년에 서경(西京)의 혜일사(慧日寺)에서 번역하였다. 여러 종류의 다라니를 모아 놓은 경전이다. 수인(手印)·화상법(畫像法)·제단(祭壇)의 건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하고 있다.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에서 편집된 위경이라는 견해도 있다.

내용은...당(堂)을 건립할 때에는 ①...(땃줄하나를 가지고 장단을 제거나 원의 넓고 좁음을 헤아려 수대로 매듭을 정한 다음) 도량의 사방에 땃줄을 당겨서 아래에 흰색가루로 점찍어 표시한다. ③ 그 구덩이에 칠보(금, 은, 진주, 산호, 호박, 수정,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전 속에 오방위 작법에 따른 진단구 매납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신성 결계를 위하여 정 중앙의 佛部和 東西南北의 사방모서리에 30cm 내외(다른 소의경전에는 2결=60cm)의 구덩이를 파고 그 내부에 각종 칠보오곡을 매납한다’는 作壇法이 설명되어 있다.

밀교적 성격이 강한 기단작법이지만 ‘권위건물’로 표현되는 건물은 대부분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배불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에도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을 조사사례⁴¹⁾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권위건물 대부분은 이 오방위작법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작단법에는 황색 보자기에 칠보오곡을 싸서 넣으라고 되어 있으나,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보자기 대신으로 향아리, 호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⁴²⁾ 그러나 조사현장에서는 이들 五方位에 작단법이 그대로 지켜지는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방위나 하나의 방위 또는 기단의 외곽 경내지에서 확인되는 진단구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기단외곽에서 보이는 진단의식은 “8방위 또는 문지(건물의 사방 계단)의 좌우에 매납한다”는 또 다른 소의경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내에서는 모두 단지에 기물을 매납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기단 내 적심석 주변과 사방의 계단(문지)주위에도 진단유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학자들에 의해 자주 보고되는 “흠뿌리는 공양물(지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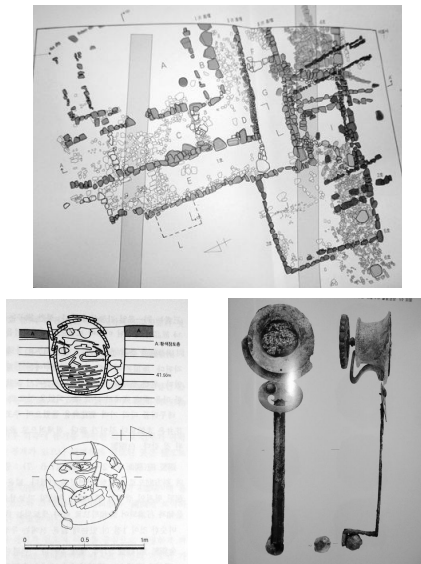
유리,)를 잘게 부수어 오곡(대맥, 소맥, 도곡, 소두, 호마)과 함께 명주에 싸서 오색으로 끝을 묶어 구덩이에 매납한다. 매납할 때 오색의 끈은 오지 정도의 길이를 밖으로 낸다 ④ 이 보물은 한번 넣은 후 영원히 꺼낼 수 없으며 이로써 금승계지가 칠보와 합해져서 이루어지니 모든 부처님께서 그 위에 머무시어 대승을 설하시며 법륜을 굴리시는 곳이다.

41) 원각사지 및 회암사지의 진단구 사례

42) 실제 천으로 진단구를 매납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산성토양이 대부분인 한반도에서는 그 예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아직 보고된 예도 없다.

)⁴³⁾”에 대한 보고도 주목할 만한데 국내에서도 황룡사와 미륵사지 등에서 공양물들이 기단토에서 무질서한 배열로 출토되고 있음은 이러한 내용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때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퇴장유구의 해석부분도 밀교의 작단⁴⁴⁾과 같은 맥락과 연결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원형적인 의궤검토를 일차적으로 한 후, 변형되어 민속적인 부분이 가미된 형태의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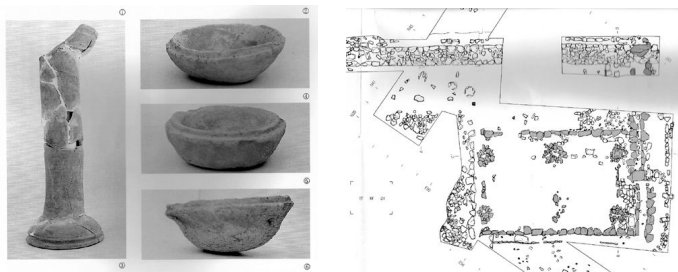


▲ 말흘리 건물지 유적의 추정 진단구 (퇴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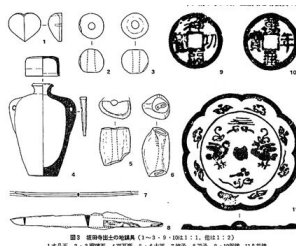
43) 兼康保明, 「寺造りのまじない」, 『古代佛教の考古學』 季刊考古學 34號, 1991.

44) 森郁夫 「密教による地鎮、鎮壇具に埋納について」, 『佛教藝術』 84, 1974.

45) 근래에 많이 보고되는 동강난 채 확인되는 토제마와 철제마의 제사의식이 황룡사지 미륵사지등의 고대가람뿐 아니라 조선시대 원각사지 진단구 내에서까지 확인되는 현상은 가람축조에 대한 의궤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나, 한반도 고유의 신앙과 결합된 변형된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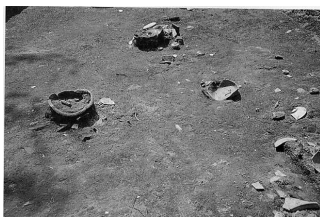


▲ 인각사지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기반외곽 진단구(호) 내의 출토품



▲ 연천심원사지 기반불대좌하 출토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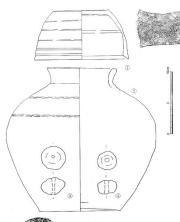
▲ 일본 판전사출토 지진, 진단구



▲ 원각사지 기반내 진단구



▲ 원각사지 진단구 세부



▲ 성주심원사지 진단구

▲ 진단구의 제 유형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불교고고학이라는 거대한 주제 속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시론적 내용을 개괄적이거나 정리해 보았다.

보다 세밀한 연구방법을 정리하지 못한 점은 질책으로 받아야겠으나, 이번 발표의 취지는 한국고고학의 발전과 함께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도 매우 크다는 점은 주지할 만한 일이나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불교유적에 대한 능동적 주체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미흡하나마 불교고고학의 정의를 불교역사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된 성과를 왕조역사에서 한단계 나아가 불교역사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우선 연구영역을 공간성, 시간성으로 구분하여 불교고고학의 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유의점을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별장으로 구분하여 문화적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중심으로 유적을 해석하는 연구방법을 몇가지 사례로 시론하여 보았다.

물론 여기서는 유적에서 드러나는 현상만을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불교고

고학의 범주전체를 고려한다면 불구에 해당되는 것도 모두 문화적 해석을 위한 텍스트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으나, 밀교불교로 잘 알려진 금강저, 금강령에 대한 불교적 의미도 『불설다라니집경』 속의 「불설발절라공능법상품」에 제작 과정부터 납입물목, 저의 숫자가 지니는 밀교적 의미까지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다.⁴⁶⁾ 이러한 문화적 해석은 고고학의 기본인 정확한 토층조사나 유구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정확한 고고학적 조사방법으로 시간적 공간적 과정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화적 의미를 부여 하고자 할때는 불교유적인 만큼 일반 사료 뿐아니라 경전적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보다 세밀하게 규명된 문화적 의미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조사된 유적 중 특히 많이 활용되는 보존과 정비부분과도 직결되는 만큼 불교고고학의 조사방법과 해석방법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終)

46) 염주와 같은 작은 佛具에 대한 의미와 이에 따른 제작과정 등도 모두 경전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시간적 의미는 차지하더라도 문화적 해석부분은 반드시 참조해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 1961
『法苑珠林』卷39, 1992
『佛光大辭典』卷33, 22,
『』, 2005.
『』, 2010.
가 . 『』 3
』 2005.7
가 . 『』 -
-』, 1996.
『』 3 』, 1993
“ 3 ” 2007, 12
『』 가 』,
『』, 2004.
『』 18 』, 『』
『』, 1996.

坂詰秀一 , 『日本考古學小辭典』, newsience社, 1985.
石田茂作 , 『新版佛教考古學講座』1~7, 1975~77.
文化庁文化財部記念物課 『史蹟等 整備のてびき - 1. 總説編 資料編 - 』, 同成社, 2005
兼康保明, 「寺造りのまじない」, 『古代佛教 考古學』季刊考古學 34號, 1991.
森郁夫 「密教による地鎮 鎮壇具に埋納について」, 『佛教藝術』84, 1974.

Abstract

A Study on Methodology of Archeology of Buddhism

Choi tae sean || JungAng Sangha Univ

The term of 'Archeology of Buddhism' in dictionaries means as a type of methodology that explores the remains of Buddhism. In professional academia, it can also be a part of 'religion of Buddhism', where the term can be defined as an archeological methodology to study and research the remains or circumstances of Buddhism.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es of remains of Buddhism, 'Archeology of Buddhism' is still unstable as an academic term.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paper purports to define the academic term of 'Archeology of Buddhism' and to explore methods to research it. The research has employed the studies in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ose in our own country.

First of all, the research suggested that 'Archeology of Buddhism' should be a process of examining history of Buddhism, which still demands further studies. It requires deliberation if the results of research could be interpreted as history of Buddhism beyond history of dynasties.

The research divided the dimension into two parts, time and space,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ritical points from the two perspectives. I also suggested the following points in methodology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rcheology of Buddhism' as an academic arena:

1) A chronological chart including literature and archeological data should be required for significant results;

2) The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remains in a geographical meaning, would be checked by exploring cultural meanings. This paper proposed the way to specify the transitional situations as a religious belief or a space involved changed; and

3) The criteria and methods of classification of relics can be created by explaining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Tanalpan in study of roof tiles. Roof tiles would indicate the chronological orders of archeological remains in a best way, since they are more stable and the amount of them are bigger than porcelains, which have always demanded more efforts and studies to classify and arrange in an efficient way.

4) In a separate chapter, a few case studies of methodology were examined to interpret philosophy and thoughts of Buddhism to understand its cultural meaning.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scope of 'Archeology of Buddhism' beyond the situations that the relics are telling, Buddhism instruments could also demand further text developments for cultural understanding.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one, which may require more and further researches and cooperative inquiries.

